

11월 사양관리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임석기, 최순호



11월은 밤낮의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야간의 갑작스런 기온 저하에 대비해 보온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환절기 송아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축사 내외의 동파방지 및 겨울나기를 위한 마무리 준비가 필요하다.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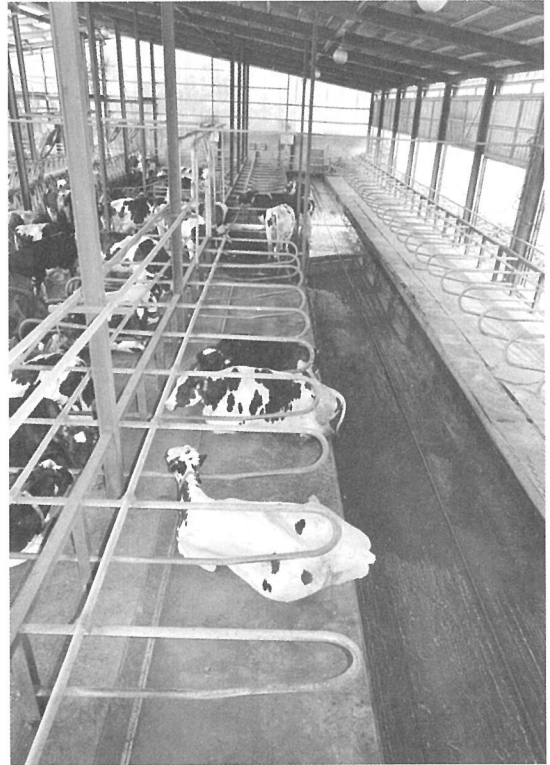
가온급수기 가동 시 누전 쇼크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급수기의 물이 얼게 되므로 전기를 넣어 물이 얼지 않도록 물의 온도를 높여준다. 주의할 것은 여름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온급수기에 전기를 넣어 줄 경우 반드시 누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는 전기에 매우 약하므로 약간의 누전에도 쇼크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소들은 급수기에 접근을 꺼려 음수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산유량 저하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가을에는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로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늘어나며 체중이 증가하므로 사료 급여수준을 검토하여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한다. 사료 TMR 배합비는 각 농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며, 변경된 배합비로 급여할 경우 10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한다.

여름철에 만들어놓은 옥수수사 일리지도 서서히 급여할 시기가 됐다. 일반적으로 제조부터 가축에게 급여할 때까지 일어나는 총에너지 손실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40% 정도인데, 이러한 손실은 주로 사일리지 제조 후 2차 발효 및 급여과정에서 일어나며 손실 에너지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개봉 후 포크나 삽으로 파낼 때 사일리지의 파내는 면적을 가능한 한 적게 하면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매번 파낸 다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 주어야 한다.



번식관리

고영양분·고에너지 사료 급여해 영양균형 맞춰야

11월은 하절기보다는 수태율이 높은 2월에 인공수정 시킨 소들이 분만을 많이 하는 시기이며,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정재귀 지연 등 저하되었던 번식능력을



회복하는 시기로 고영양분·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해 고온기 때의 부족했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섬유소 함량은 15~17%가 유지되도록 하며 건물 섭취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만우의 경우 산유량에 비해 건물 섭취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산유초기에서의 에너지 부족이 심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곧바로 번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수정시기에 영양관리를 잘 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배란 및 발정이 일어나 충실한 수정이 가능해지므로, 분만 후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공급해 에너지 부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분만 초기 건물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정상 배란을 시작하게 되며, 정상적인 크기의 황체 발육으로 착상호르몬의 생성능력이 증가됨으로써 수태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동절기에 대비해 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에서 신체충실지수(BCS)는 소의 영양 상태를 현장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식성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신체충실지수를 2.5~3.0으로 유지시키는 사양관리를 하지만, 동절기에는 유지에너지를 감안해 사료급여량을 늘려서 신체충실지수 저하로 인해 수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분만 후 원활한 자궁회복으로 재귀발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고온기를 지나 영양이 회복됐다고 할지라도 승가행위로 발정을 나타내는 소는 전체 축군의 50%를 상회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오전, 오후 2회 1시간은 발정확인에 할애해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